

컬러풀하게 물드는 아트의 도시

작품명
(좌) '2025년 오사카·칸사이 엑스포 로고 심벌'
제작자: 시마다 타모츠 씨
(우) '코노하나 수릉'
프로듀스: 오키다 준이치 씨
아티스트: 코마츠 미와 씨
※예술품은 실제 배치와 다릅니다.

쇼렌지가와 공원

오염된 강이 주민의 염원으로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. 코노하나 구청에서는 2025년의 오사카·칸사이 엑스포와 구 지정 100주년을 계기로 아트와 사람이 모이는 '장소'를 목표로 쇼렌지가와 공원에 공공 예술을 설치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

뮤럴 아트

바이카 구역을 비롯해 코노하나구 내 곳곳에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벽화를 그린 '뮤럴 아트'가 있습니다. 도시를 걷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.



▲뮤럴 아트



아티스트명: Nut(넛)
중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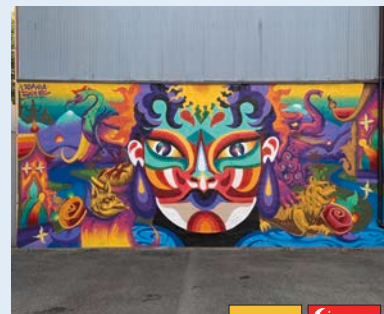
아티스트:
Dan Kitchener(댄 키치너) 런던



아티스트명:
Aleksandra 폴란드



아티스트:
FORK(포크) 러시아



아티스트명:
LEDANIA & song
(레다니아&송)
콜롬비아&싱가포르



코노하나 컬러풀 SDGs ~마을 속 포토 스팟~

코노하나구 내 17곳의 우체통을 SDGs(지속 가능 발전 목표) 17개의 목표를 의미하는 SDGs 컬러로 페인팅했습니다. 힌트를 참고삼아 돌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.



▲자세한
내용과 장소
힌트



▲포토 스팟
지도

SUSTAINABLE DEVELOPMENT GOALS



장소에 대한 힌트는
홈페이지에서!



빨강이 아니야!